

## 건식 수입물량 4300억원대

작년, 영양보충용 제품 1억 8300만불로 42%DHA·효소 함유 제품 뒤이어 지난 한해동안 국내에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은 모두 5816건, 4억3230만불어치(1만1385톤)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 식품과에 따르면 전체 수입건강기능식품 중 영양보충용제품이 2406건 1억8389만7000불로 금액 면에서 42.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EPA 및 DHA 함유제품으로 467건 8767만1000불을 기록, 20.2%의 점유율을 보였다. 이어 효소함유제품이 전체의 10.2%인 4407만6000불어치, 베타카로틴함유제품이 2886만2000불어치, 알로에 제품 2130만3000불, 글루코사민함유제품 1438만5000불, 클로렐라제품 1300만6000불어치가 수입됐으나 건수면에선 알로에(383건), 클로렐라(377건), 글루코사민함유제품(253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나라별로는 미국이 2529건 3억6783만4000불로 가장 많았

으며, 다음은 일본으로 904건 2925만5000불, 캐나다 633건 535만7000불, 중국 360건 671만6000불, 호주 316건 253만4000불 순이었다. 이어 뉴질랜드에서 177건 151만5000불, 태국 176건 357만6000불, 대만 145건 425만2000불, 독일 104건 70만6000불, 이탈리아에서 88건 240만2000불 어치가 각각 수입됐다. 이들 수입 건강기능식품 중 4%인 233건이 부적합판정을 받았는데, 부적합내용을 보면 정밀검사 225건, 서류검사 6건, 관능검사 및 무작위검사가 각각 1건씩이었다. 상위 10개 국가의 부적합 현황을 보면 미국이 103건(39톤 248만5000불)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각각 23건을 기록한 중국(49만9000톤)과 호주(20만2000톤)가 그 뒤를 이었으며 뉴질랜드 19건(9만3000톤), 일본 8건(110만7000톤), 캐나다 16건(8만4000톤), 대만 8건(28만9000톤), 태국 6건(3만7000톤), 독일 1건(1000불)의 순이었다.

## 건식 '표시 누락' 많아

절반이상 효능·주의사항 기재 안해소보원 조사

시중에 유통되는 상당수 건강기능식품이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섭취 시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3일 약국, 백화점 등에서 판매중인 건강기능식품 86종의 표시실태를 분석한 결과 25.6%에 해당하는 22종이 1일 섭취횟수나 부작용 등 주의사항을 미흡하게 표시하거나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조사 대상 중 38.4%에 해당하는 33종은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다'는 것을 표시하지 않았고 34.9%인 30종은 '면역력 증강', '성장 발육 도움'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소보원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정보

표시 면에 표시하게 돼 있는 섭취시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제품의 전면에 표시하도록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기준을 개선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들이 제품의 효능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의약품과 혼동하기 쉬운데 제품의 효능과 부작용 등을 알려주는 표시제도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상담 건수는 총 8,036건이며, 이 가운데 제품 구입 이후 '부작용' (13.5%)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고, '효능' (8.0%) '제품 불량' (4.0%) 등의 불만이 뒤를 이었다.